

『經世訓民正音圖說』과 『五音集韻』의 운모체계 비교*

배 규 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경세훈민정음도설』 음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음집운』과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상관 관계를 먼저 정립한 후, 『오음집운』의 운모체계의 특징인 2등운의 병합, 3등운 간의 합류, 3·4등운 간의 병합이 『경세도설』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두 문헌을 비교하였다.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운부 체계를 비교한 결과, 支·脂·之운, 皆·佳운, 山·刪운, 銜·咸운, 嚴운이 『경세도설』에서는 분리하고, 『오음집운』은 이미 위의 운들이 병합되었다. 『경세도설』 중 2등운 중운인 山·刪운, 佳·皆운 및 거성 卦·耕·庚운, 威·銜운이 실제 용자의 배열에서 혼용되었다. 『오음집운』의 3등운 중 支·脂·之운이 支운으로, 眞·臻운이 眞운으로, 嚴·凡운이 凡운으로 합쳐졌는데, 『경세도설』에서는 支·脂·之운을 분리시켰으나, 실제 용자에서는 支·脂·之운이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세도설』은 凡韻을 嚴운에 귀속시켰으나, 『오음집운』은 嚴운을 凡운에 배열하였다. 『경세도설』에서 先운과 仙운, 鹽운과 添韻이 합류되었고, 宵·蕭운, 靑·淸운이 각각 함께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세도설』의 용자 배열은 『오음집운』 운부 체계의 양상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세도설』의 중성 표기음이 『오음집운』의 재구음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석정이 자신의 언어관념과 역리적 틀에 따라 설계한 중성 자모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주제어] 한국 등운도, 최석정, 오음집운, 경세훈민정음도설, 중성 체계, 언어관

목 차

- I. 緒 論
- II. 최석정의 언어관과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의 중성 자모
- III.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오음집운(五音集韻)』의 상관 관계
- IV.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오음집운(五音集韻)』의 운모 체계 비교
- V. 結 論

* 중국 하문대학(廈門大學) 중문과 한어언문자학 박사 연구생 / bhb0218@naver.com

I. 緒 論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조선시대 『구수략(九數略)』(1700)을 집필한 수학자이자 숙종대 영의정을 역임하며 소론(少論)을 이끌었던 문신이다.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이하 『경세도설』)¹⁾은 최석정이 한어음운(漢語音韻) 및 운서(韻書),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책으로, 1678년 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²⁾ 이 책의 서론에 최석정의 훈민정음에 대한 분석과 그 분류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세도설』은 국어학사뿐만 아니라 한국 한어음운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선 세종조에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훈민정음 주음을 추가한 운서 『사성통고(四聲通攷)』(1455 또는 1475년 이전),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사성통해(四聲通解)』(1517)가 연이어 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등운도³⁾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다소 찾아보기가 힘들다.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이계집(耳溪集)』 권10 중 「경세정운도설서(經世正韻圖說序)」를 통해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었었는데, 일본 교토대학의 하합(河合)문고에서 김지용(金智勇)이 『경세도설』⁴⁾을 발견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1968년 이 문헌을 영인하여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국내외 학계에서 최석정의 역학적 언어관 및 『경세도설』의 음운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와 『경세도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번역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창균(1962), 김석득(1972), 김필규(1979), 이희재(2014) 등의 연구⁵⁾는 『경세도설』의 사상적 배경과 최석정의 역리적 언어관, 그리고 소용의 「성음창화도(聲音唱和圖)」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배윤덕은 『경세도설』의 체재를 분석하여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韻攝圖와 관련하여」(1990),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1991),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外內四攝부터 外內八攝까지」(1995), 『우리말 운서의 연구』(2005) 등을 발표하였다. 배윤덕(1990)은

- 1) 이 책은 乾, 坤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세훈민정음”, “경세정운”, “경세정운도설”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이 책의 표제는 “경세훈민정음(經世訓民正音)”이고, 乾권의 제1장은 “經世正韻序說”, 坤권의 제1장은 “경세정운오찬(經世正韻五贊)”과 “논정운도설(論正韻圖說)”이라 칭하고 있다. 홍양호의 서문에서는 이 책을 “경세정운도설(經世正韻圖說)”이라 칭하고 있고, 정계두와 교류한 서신에서는 “경세정운도(經世正韻圖)”라고 부르고 있다. 김지용(1968: 11)은 훈민정음 28자에 대하여 도설(圖說)하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여러 서명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김지용(1968)의 해제에 따라 “경세훈민정음도설”이라 칭하기로 한다.
- 2) 『經世訓民正音圖說·坤』에 실린 「五贊注」에서는 “최석정이 저술한 것으로, 이 책은 무오년 봄에 완성되었다(錫鼎著, 此書戊午春成……)”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 「戊午春」은 조선조 숙종 무오년인 숙종 4년(1678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경세훈민정음도설』이 완성된 시기를 1678년으로 추정한다.
- 3) 등운도 문헌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불교의 승려들에 의하여 연마되던 『실담장(悉曇章)』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한자의 성모와 운모, 성조를 배합한 음절표의 형태로 중국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한국 등운도로는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등이 있다.
- 4) 김지용은 1968년에 『경세도설』에 대한 해제를 발표하였는데, 『경세도설』의 乾권이 「성음편(聲音篇)」과 초고가 동일한 글자 체이며, 또한 이 판본은 저자 최석정이 출판의 전제로 수기(手記)한 판본이라고 보았다. 원본 『경세도설』은 일본 교토대학 하합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 5) 유창균, 「『경세정운』 고」, 『논문집』, 1962, 5, 15~39쪽; 김석득,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역리적 구조」, 『동방학지』, 1972, 13, 135~170쪽; 김필규, 「『경세훈민정음』 연구」, 『수련어문논집』, 1979, 7, 1~27쪽; 이희재, 「17세기 조선 후기 최석정의 훈민정음의 역학적 원리 연구」, 『대동철학』, 2014, 66, 51~66쪽.

『경세도설』의 운섭도를 연구하여, 「율려상승배합성자도(律呂相乘配合成字圖)」와 「음분벽흡도(音分關翕圖)」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연이어 발표한 배운덕(1991)은 『광운(廣韻)]의 운목자와 『경세도설』의 내, 외섭을 비교하였고, 배운덕(1995)은 계속하여 운섭 내, 외도와 『광운』 운목자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 문헌이 『광운』에 의거한 용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소희(2012a)는 『경세도설』의 「성음율려창화도(聲音律呂唱和圖)」와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이하 『절운지남』) 등 두 문헌의 운도 구조 및 운목 배열을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소희(2012b)는 최석정과 정계두가 왕래한 서신의 내용을 고증하였고, 그 중 일부 내용은 성운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심소희(2012c)는 『경세도설』 坤권과 저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여 최석정의 훈민정음에 대한 재인식을 조명하는 한편, 소옹의 「성음창화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재창조한 『경세도설』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王松木(2016)은 『경세도설』의 편찬 이념 및 음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경세도설』이 “천지자연지원성(天地自然之元聲)”의 이상화된 음계를 펼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경세도설』과 단옥재(段玉裁)의 고음 운부를 비교하여 ‘支, 脂, 之’ 세 개의 운을 정확히 구분한 점에서 『경세도설』이 상고 운부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최석정의 철학사상과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경세도설』 반절의 근거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강신항(2007: 257)은 최석정이 한음(漢音)을 나타내고 하였으나, 어느 운서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세도설』과 관련한 사료를 살펴 보면, 최석정은 “『예부운략』에서 수록하고 있는 글자 수는 9천 자인데, 반절에 음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것이 많으므로 『오음집운』을 취하였습니다.”⁶⁾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이 상관 관계에 있다고 설정하고 운부 체계와 용자(用字)에 대하여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⁷⁾ 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석정이 다소 독창적인 언어관으로 훈민정음과 「성음창화도」를 재해석해 낸 점을 알 수 있다. 『경세도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언어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저자인 최석정의 언어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세도설』 운모 체계를 논하기 위하여 먼저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상관 관계와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오음집운』 운모 체계의 특성이 『경세도설』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6) 최석정, 『명곡집』, 「與鄭齊斗書又」, 韓國文集叢刊 154, 민족문화추진회, 1995, 122쪽, 『예부운략』에 없는 글자는 이 도에서 성음의 다름을 취한 것입니다. 『예부운략』에서 수록하고 있는 글자는 9천 자인데, 반절에 음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오음집운』을 취하였는데, 『집운』을 수정한 것이고, 창려의 후손인 한도소가 편찬한 것으로, 글자 수가 8만에 이릅니다(禮韻所無之字. 此圖只取聲音之別異. 禮韻所收字數. 僅九千字. 反切之有音無字者甚多. 故今取五音集韻. 通修集韻. 是昌黎後孫韓道昭所編. 字數多至八萬有奇).

7) 『經世訓民正音圖說·坤』의 「군서절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한 운서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저작이 아니다. 『경세도설』의 철학적 사상에는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운도의 체계와 운자의 배열에서는 유감(劉鑑)의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석정은 36자모, 『절운지남』, 『황극경세해기수결(皇極經世解起數訣)』, 『예부운략』, 범어(梵語) 자모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신만의 언어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실이 『경세도설』인 것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고자 하며, 그 연구 목적이 『경세도설』 운도가 오로지 『오음집운』에만 기반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필요한 경우 중국의 운서인 『광운(廣韻)』(1008)과 중국의 운도인 『사성등자(四聲等子)』(未詳) 및 『절운지향도(切韻指掌圖)』(未詳), 『절운지남』(1336)을 보조 자료로 참고하여 그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경세도설』의 판본은 명문당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것이다. 『오음집운』은 寧忌浮가 校訂한 『校訂五音集韻』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보조 자료는 余迺永 校注本 『新校互註宋本廣韻定稿本』,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四聲等子』, 影印文淵閣四庫全書本 『切韻指掌圖』 및 『經史正音切韻指南』을 참고하였다.

II. 최석정의 언어관과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 중성 자모

1. 의고적인 언어관

최석정은 15세기에 활동하였던 음운학자와는 다르게 한어(漢語)의 측면에 있어 상당히 의고(擬古)적인 성향을 띤 학자이다. 그의 한어(漢語) 언어관을 형성하는데 사서구경(四書九經),⁸⁾ 『초사』 등의 고문헌(古文獻)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여러 방면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경세도설』 坤권의 「군서절충(群書折衷)」을 들 수 있다.

그는 「군서절충(群書折衷)」에서 원대(元代) 유감(劉鑑)의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1336)을 평가하는데, 입성(入聲)의 배열에 대하여 “어그러짐을 면하지 못한 것”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였고, 『예부운략(禮部韻略)』 중 나타난 운의 병합에 대하여 “마땅히 병합하지 않아야 할 운을 병합한 것”¹⁰⁾이라고 평가하였다. 「군서절충」에 나타난 문헌들은 최석정이 『경세도설』을 저술하는데 일정 부분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중 중국의 현실음을 반영한 『노갈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류의 회화서와 현실음을 반영한 운서 『사성통해(四聲通解)』(1517) 등을 분석한 글을 별도로 신지 않은 점은 최석정의 어음관념이 현실음보다 문언(文言)을 더욱 중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군서절충」에서 신고 있는 『광운(廣韻)』, 『황극경세·성음창화도(皇極經世聲音唱和圖)』, 『황극경세해기수결(皇極經世解起數訣)』, 『예부운략』, 『절운지남』 등의 문헌은 모두 청대 이전의 어음에 기초하며, 대부분의 문헌은 당시 편찬 시기의 언어적 특징을 반영하였으나, 대체로 문언음(文言音)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볼 때, 최석정의 언어적 관념은 상

8) 사서(四書)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구경(九經)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주례』, 『의례』, 『좌전』, 『곡량전』, 『공양전』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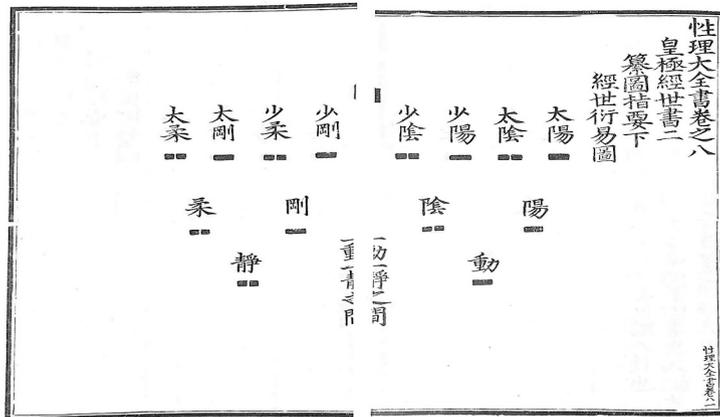
9) 『經世訓民正音圖說·坤』, 『群書折衷·劉氏切韻指南』: 哈운부와 齊 운부는 한 섭에 있는데, 哈운부는 山섭의 曷을 빌리고, 齊운부는 臻섭의 質운을 빌린 것은 어그러짐을 면하지 못하였다. 또한 哈운부가 曷운을 빌린 것은 속음으로써 그 음에 가까울 수 있고, 灰운부에서 未운을 빌린 것은 속음을 바로잡은 것인데 모두 맞지 않다. 歌운부가 鐸운을 빌려온 것은 옳은 것이지만, 麻운부가 鎋운을 빌린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哈齊攝之中, 哈借山攝之曷. 齊借臻攝之質, 未免舛駁. 又哈之借曷, 以俗音之近. 而灰之借未, 求之正俗, 皆不合. 歌之借鐸是也. 而麻之借鎋無据).

10) 『經世訓民正音圖說·坤』, 『群書折衷·禮部韻』: □(문맥상 ‘四’로 추정)성은 무릇 106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땅히 병합하지 말아야 할 운을 병합한 것으로는 廢운이 隊운으로, □운이 威운으로, 魂, 痕운이 元운으로 들어간 것이다. 皆운이 佳운에 속하고, 脂, 之운이 支운에 섞여 들어간 것은 또한 고음을 잃은 것으로, 당대 이후 음운이 이와 같은 연유에서다(□聲凡一百六韻. 其不當併而併者. 廢入於隊. □□於威. 魂痕入于元是也. 皆入于佳. 脂之混入于支. 亦失古音. 而唐以後音韻如此故也).

당히 복고(復古)적인 성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2. 완전한 음계의 추구하고 역리적 언어관

『경세도설』 중 하나의 주제어를 찾자면, “천지 자연의 소리(天地自然之元聲)”¹¹⁾에 대한 추구일 것이다. 「논정운도설(論正韻圖說)」에서 최석정은 자신의 운도에 해당하는 32문(門)이 “천지 자연의 소리(天地自然之元聲)”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이는 최석정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상(理想)적인 음계로, 어음(語音)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초성 자모 분류에 있어서도, 그는 경순음(輕唇音)이 후대에 소리가 변한 것이므로, 천지 본연의 소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본 운도에는 경순음(輕唇音) 글자를 배열하였으나, 초성 자모를 분류한 「성분청탁도(聲分清濁圖)」에는 경순음 자모를 신지 않았다.¹²⁾ 또한, 소옹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서 탁음자(濁音字)의 변화에 대하여서도 “본연의 소리(本然之元聲)”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경세도설』의 본 운도에는 탁음(濁音)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최석정이 훈민정음 자모와 본 운도를 구성하는데 “천지 자연의 소리” 또는 “천지 본연의 소리”가 큰 기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세연역도(經世衍易圖)」

- 11) 『경세도설』에서 천지자연의 소리는 최석정이 어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자세한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최석정이 『경세도설』의 「군서질충」에서 기록한 것과 그의 훈민정음 분류를 고려해 볼 때, 이 기준은 한(韓)한어(漢語)에 모두 적용이 되는 어떠한 이상적인 어음체계라 생각된다. 이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사상적 기초에서 기반한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언어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 12) 『經世訓民正音圖說·乾』, 「聲分清濁圖」: 순경음 초성 자모는 훈문 수등(翕門收等, 한어의 합구 3등을 가리킴)에서만 보이고, 그 종성은 오로지 간궁(艮宮)의 두 섭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후대에 성음이 변한 것이다. 천지 본연의 소리가 아니므로, 정성(正聲)의 목록에 신지 않았다. 훈민정음에 글자 표기를 세워놓지 않은 데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唇輕音初聲只見於翕門收等. 其終聲只見於艮宮二攝. 而是後來聲音之變. 非天地本然之元聲. 故不列於正聲之目. 訓民正音不立字標. 其意明矣).

이러한 체계를 구현해 내기 위하여, 『경세도설』에서는 역리적 원리를 이용하여 훈민정음의 조성과 중성 자모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것이 『주역(周易)』과 소옹의 역학 사상이다. 특히, 중성 자모는 소옹의 「경세연역도(經世衍易圖)」(그림 1)¹³⁾의 태극(太極), 양의(兩儀), 사상(四象), 팔괘(八卦)의 개념과 훈민정음을 대응시켰다.

‘·’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아, 태극(太極)의 ‘일동일정지간(一動一靜之間)’이라 보고, ‘二’와 ‘1’는 양의(兩儀)에 해당하는 동(動)과 정(靜)에 대입시켰다. 팔괘(八卦)에 해당하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소강, 소유, 태강, 태유의 개념은 각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 一, 1’가 합쳐져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사상(四象)은 그림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ㅏ, ㅓ, ㅗ, ㅛ’의 4 자모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며, 사상(四象)이 팔괘(八卦)가 되는 것과 같이, 기본자들이 합쳐져 8개의 자모를 구성하는 것이다.¹⁴⁾ 이 내용은 다음의 「십일음취상팔괘도(十一音取象八卦圖)」(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십일음취상팔괘도(十一音取象八卦圖)」



〈그림 3〉 「음분벽흡도(音分闕翕圖)」

〈그림 3〉의 「음분벽흡도(音分闕翕圖)」는 「십일음취상팔괘도(十一音取象八卦圖)」에서 설명한 중성 자모 11개에서 32개를 연역해낸 것으로, 개구음(開口音)에 해당하는 기호를 ‘벽(闕)’에 나열하고, 합구음(合口音)에 해당하는 기호를 ‘흡(翕)’에 배치하여 구분한 것이다. 이 중 이흡(二翕)은 일벽(一闕)의 ‘ㅏ, ㅑ, ㅓ, ㅕ’와 사흡(四翕)을 합한 것¹⁵⁾이고, 사흡(四翕)의 원편에 있는 16개의 자모는 일벽(一闕), 이흡(二翕), 삼벽(三闕),

13) 『성리대전(性理大全)』의 권8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중 「찬도지요하(纂圖指要下)」에 수록되어 있다.
 14) 『經世訓民正音圖說·乾』, 「十一音取象八卦圖」: 혹자가 “이 그림에는 양의는 있으나 사상은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아, 어, 오, 우가 바로 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二’와 ‘1’을 ‘ㅏ’로 삼고, ‘1’와 ‘1’을 ‘ㅑ’로 삼으며, ‘二’와 ‘1’을 ‘ㅓ’로 추정)로 삼고, ‘1’과 ‘1’을 ‘ㅕ’로 삼고, ‘二’와 ‘1’을 ‘ㅗ’로 삼으며, ‘1’과 ‘1’을 ‘ㅛ’로 삼았고, ‘二’와 ‘1’을 ‘ㅜ’로 삼고, ‘1’과 ‘1’을 ‘ㅠ’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상에서 팔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고 하였다(或曰, 此圖有兩儀而無四象, 何也. 曰, 阿於於是四象也. 應阿爲阿. 伊阿爲也. 應於爲□(於로 추정). 伊於爲與. 應鳥爲鳥. 伊鳥爲要. 應于爲于. 伊鳥爲由. 此四象生八卦也).
 15) 『經世訓民正音圖說·乾』, 「音分闕翕圖」: ‘ㅏ, ㅑ, ㅓ, ㅕ’와 ‘ㅗ, ㅛ, ㅜ, ㅠ’를 합쳐 쓰면 이흡(二翕)이 된다(阿也於與與鳥要于由合書而爲二翕).

사흠(四翁)의 자모에 ‘ㅣ’를 더하여 도출한 것이다.¹⁶⁾ 위와 같은 중성 32개의 연역 과정은 흡사 사상팔괘(四象八卦)의 틀에 수학적 원리를 더한 공식과도 같다. 이 때문에 최석정이 도출한 「음분벽흡도(音分鬮翁圖)」에는 16~17세기에 사용되지 않고,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한자음(漢字音) 표기와 『사성통해』, 한어 회화서에 나타나지 않는 중성 자모도 포함하고 있다.

3. 자학 중시하는 문자관

최석정의 언어관념에는 음운학적 요소 외에, 문자학적 요소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¹⁷⁾ 『경세도설』의 「술지(述志)」에서는 편찬 방법과 그 체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석정이 어떠한 의도로 『경세도설』을 서술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자학을 상고해 보건대, 그 사용은 실로 널리 미치는데, 작은 것으로도 군자가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으뜸으로 세우는 것은 왕훈으로, 운목을 차례로 나열하여 분류를 취합하여 무리를 나누었다. 소용의 경세상수(『황극경세서』와 상수론을 가리킴)로써 보충하고, 율려를 창화하니 널리 갖추었다(若稽字學, 其用寔咸, 小猶可觀, 君子用心. 其首建也, 王訓是原, 次列韻目, 類聚群分. 補以邵氏, 經世象數, 律呂唱和, 廣大悉具).

‘述志’는 ‘『경세도설』의 취지를 서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최석정은 그 출발점을 자학(字學)에서 찾고 있다. 字學은 전통 ‘소학(小學)’과 같이 글자의 원리, 음, 뜻에 대한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군자의 마음 씀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학의 첫째는 왕의 훈, 즉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운목을 배열하고 글자를 취합하여 분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말과 우리 글자에서 이 연구가 출발하였음을 서술한 것이다. 최석정이 운도를 저술하는 데 있어 자학을 중시한 이유의 그의 가풍에서 찾을 수 있다.

선대께서 신라시대 초기에 여섯 부락의 한 촌장으로, 박혁거세를 보좌하시어 완산에 본적을 두었고, 대대로 관직을 이으면서 가풍을 받들어 전술하고 현인들을 사숙하고 오로지 육서에 정진하였다. 실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조용히 체득하였다. 오랜 뒤 관통하고 융합하여 이 책을 지었다(祖自羅初. 六部之一. 是佐赫居. 俾籍完山. 世襲衣冠. 仰述家風. 私淑賢門. 專精六書. 實自童丱. 涵而會之. 久乃融貫. 作爲此書).

16) 『經世訓民正音圖說·乾』, 「音分鬮翁圖」: 갑을병정(甲乙丙丁)이 무기경신(戊己庚辛)을 낳는 것은 16이 32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甲乙丙丁生戊己庚辛. 卽十六分爲三十二也).

17) 이와 함께 소용(邵雍)의 역학(易學)에 기반한 역리(易理)적 요소도 그의 언어관을 형성하고 구현해 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술지(述志)』에서 완산(完山) 최씨(崔氏)에 본적을 둔 최석정의 일기는 현인을 우러러, 그들을 좇아 자학에 정진하는 것이 가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석정 자신도 어릴 적부터 이를 해득하여 『경세도설』을 지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세도설』을 저술하는 데 최석정이 음운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학적 요소도 참고하였고, 이는 그의 가풍에서 비롯된 영향임을 알 수 있다.

Ⅲ.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오음집운(五音集韻)』의 상관 관계

현재 학계에서 흔히 지칭하는 『오음집운(五音集韻)』은 한도소(韓道昭)의 서문이 추가된 『개병오음집운(改併五音集韻)』(1208)의 간칭이다.¹⁸⁾ 형박(荆璞)의 『오음집운』은 『광운』과 『집운』의 각 소운(小韻)을 수정한 운서인데, 한도소의 서문에 의하면 『개병오음집운』은 형박의 『오음집운』에 수정 및 증보 작업을 거쳐 1208년에 편찬된 운서이다.¹⁹⁾ 『개병오음집운』은 『광운』, 『집운』 등 기존의 운서와는 달리, 각 소운마다 섭(攝), 운(韻), 개합(開合), 4등(四等)을 표기하였다. 운모에 개합(開合)과 등제(等第)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오음집운』은 중국 음운학사에서 등운도의 성질을 가미한 운서라는 평가를 받는다.²⁰⁾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관례를 따라 『개병오음집운』을 『오음집운』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오음집운』이 어떻게 한반도로 전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 과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국 운서인 『예부운략』은 과거 시험용으로 쓰였다. 『배자예부운략(排字禮部韻略)』이 조선 시대에 몇 차례 간행되고, 『예부운략』과 상보하여 쓸 수 있는 『예부운략옥편(禮部韻略玉篇)』이 편찬되었다. 또한, 명대 관운서인 『홍무정운(洪武正韻)』(1375)이 한반도로 전해지면서, 15~16세기 조선에서는 훈민정음으로 『홍무정운』 및 15~16세기 중국음을 표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결과, 『사성통고(四聲通攷)』(1455 또는 1475년 이전),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사성통해(四聲通解)』(1517)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예부운략』, 『홍무정운』보다 정치적, 실용적 목적성이 약한 『오음집운』은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7세기까지도 『오음집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책은 최석정과 당시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최석정은 숙종조 영의정을 역임한 고위 관료이며, 수학, 자학 및 『주역(周易)』 등에 능통하였다고 알려져 있다.²¹⁾ 그의 조부인 최명길(崔鳴吉, 1586~1647) 역시 좌의정, 영의정을 지내며 정치적 영향력이 지

18) 忌浮, 「금대한어어언수평(金代漢語語言述評)」, 『社會科學戰線』, 1987, 1, 338쪽.

19) 忌浮, 앞의 논문, 338쪽; 忌浮, 「『五音集韻』與等韻學」, 『音韻學研究』, 1994, 3, 80쪽.

20)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46쪽.

2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 56권, 11월 11일, 癸卯. 판중추사(判中樞事) 최석정이 좋았다. 최석정은 자(字)가 여화(汝和)이고, 호(號)가 명곡(明谷)인데, 문충공(文忠公) 최명길의 손자이다. 성품이 청명(淸明)하고 기상(氣像)이 화락(和樂)하고 단아(端雅)했으며, 총명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어려서 남구만(南九萬)과 박세채(朴世采)를 따라 배웠는데, 이치를 분별하고 깨달아 12세에 이미 『주역(周易)』에 통달하여 손으로 그려서 도면을 만드니, 세상에서 신동이라 일컬었다. 구경(九經)과 백가(百家)를 섭렵하여 마치 자기 말을 외듯이 하였는데, 이미 지위가 고귀해지고 늙었으나 오히려 송독(誦讀)을 그치지 않으니, 경술(經術)·문장(文章)·언론(言論)과 풍유(風猷)가 일대 명류(名流)의 중추가 되었다. 산수(算數)와 자

대한 인물 중 하나였다. 최명길과 최석정 모두 사신의 신분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보면, 최석정은 한적(漢籍)에 대한 접근이 다른 관료들보다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정이 『경세도설』을 완성한 뒤, 그는 정제두(鄭濟斗, 1649~1739)에게 이 책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정제두는 최석정과 동시대 활동하였던 조선의 학자로, 최석정과 정제두는 모두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 두 사람이 교류한 서신을 보면 이 두 학자는 『경세도설』과 관련한 중요한 질의응답을 나누기도 하고, 정제두는 이 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중 정제두는 최석정에게 “도설에 『예부운략』에도 없는 글자가 많은데, 어느 책을 근거로 하였고, 그 반절은 어디에서 취하신 것입니까?(且圖攝中凡增多禮韻所無之字. 據於何書. 而其切韻何所取耶.)”²³⁾라고 물었다. 이에, 최석정은 “『예부운략』에서 수록하고 있는 글자 수는 9천 자인데, 반절에 음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것이 많으므로 『오음집운』을 취하였습니다(禮韻所收字數. 僅九千字. 反切之有音無字者甚多. 故今取五音集韻).”²⁴⁾고 대답하였다. 고려 말기에 전래된 『예부운략』은 분명 한반도에서 몇 차례씩 간행된 권위 있는 운서였다. 그러나 『예부운략』은 『광운』의 206운 체계를 대폭 간소화 및 수정한 것이었고, 그 수록자 역시 줄어들었다. 『예부운략』의 107운(106운) 체계가 성음을 구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⁵⁾ 따라서, 최석정은 『오음집운』을 반절의 근거로 취한 것이다.

또한, 한도소가 『사성편해(四聲篇海)]를 저술하였고, 자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것도 『오음집운』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최석정이 취지를 자학과도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한도소가 『사성편해』를 저술하였다는 점은 분명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석정의 문집 『명곡집』 중 「오음편운후서(五音篇韻後序)」²⁶⁾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최석정은 한도소 및 그의 부친인 한효언(韓孝彦)에 대하여 자학(字學)에 대하여 천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며, 특히

학(字學)에 이르러서는 은미(隱微)한 것까지 모두 수고하지 않고 신묘하게 해득하여 자문 경륜가로서 스스로 기약하였다(判中樞事崔錫鼎卒. 錫鼎字汝和, 號明谷, 文忠公鳴吉之孫. 清明愷悌, 敏悟絕人. 幼從南九萬, 朴世采學, 刃解氷釋, 十二已通《易》, 手畫爲圖, 世稱神童. 九經, 百家, 靡不通涉, 如誦己言, 既貴且老, 猶誦讀不輟, 經術, 文章, 言論, 風猷, 爲一代名流之宗. 以至算數, 字學, 隱曲微密, 皆不勞而得妙解, 頗以經綸自期).

22)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36권, 甲辰; 「숙종실록보급정오」 43권, 丁卯; 「숙종실록보급정오」 43권, 辛酉; 윤명선, 「崔錫鼎의生涯와學問」,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6쪽.

23) 정제두, 『하곡집』, 「與崔汝和問目」, 韓國文集叢刊 160, 민족문화추진회, 1995, 46쪽.

24) 각주 6) 참조.

25) 각주 10) 참조.

26) 최석정은 『오음편운(五音篇韻)]에 대해 “한효언, 한도소 부자가 자료를 모아 수정한 것(五音篇韻. 卽韓孝彦道昭父子所輯修也.)”라고 설명하였다. 이 구절에서 『오음편운(五音篇韻)]은 『오음편(五音篇)]을 수정하여 1208년에 간행된 『개병오음유취사성편(改併五音類聚四聲篇)](별칭 『重編改併五音篇』, 『四聲篇海])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옥편(玉篇)]이 지어진 이후, 사회가 발전하고 문자가 변화함에 따라, 『옥편』은 시대와 동떨어지게 되었다. 당대(唐代)와 북송(北宋) 학자들이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금대(金代) 학자들은 『옥편』의 글자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아 검색하기가 어렵고, 부수가 많고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수록자가 많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이에 1180년에 왕여필(王與祕)이 가장 먼저 『옥편』의 수록자를 필획 수에 따라 다시 배열하였고, 이 책을 『편해(篇海)]라고 하였다. 1190년, 한효언(韓孝彦)은 왕여필의 책을 기초로 삼아, 『옥편』의 부수를 오음(五音, 牙, 舌, 脣, 齒, 喉音을 가리킴)과 사성(四聲, 平, 上, 去, 入聲을 가리킴)에 따라 배열하여 『오음편(五音篇)]을 지었다. 13세기 초에 한효언의 둘째 아들인 한도소(韓道昭)가 이를 개정하여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주요 업적은 부수를 수정하고, 수록자를 증가시키고, 글자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이 책의 문헌 정보 및 그 가치는는 忌浮(1987: 333)의 『金代漢語語言述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도소가 왕여필(王與祕), 유감(劉鑑), 한효언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였다.²⁷⁾ 이들 모두 금대와 원대에 활동하며 자서 및 음운학 서적을 저술한 학자들이다. 이 중 최석정이 한도소가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은 『사성편해』와 『오음집운』을 저술하여 자학 및 음운학에도 모두 능통하였던 한도소의 면모를 알아본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오음집운(五音集韻)』의 운모 체계 비교

앞서 말했듯 『오음집운』의 운부 체계는 『광운』과 『집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²⁸⁾ 이 책의 본문에는 등운학(等韻學) 요소를 가미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에 따라 학자들은 『오음집운』의 운모체계에서 나타난 큰 변화를 운의 등제(等第) 및 개합(開合)과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그 예로, 忌浮(1987: 339)는 『오음집운』 중 운모의 변화를 『광운』의 ‘중운(重韻)’이 합쳐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1등운인 談운이 覃운으로 합쳐졌고, 2등운 중 刪운과 山운, 佳운 및 夬운과 皆운, 耕운과 庚운, 銜운과 咸운으로 병합되었다. 또한 3등운에서 支운과 之운이 脂운에 병합되었으며, 眞운과 臻운, 幽운과 尤운, 嚴운과 凡운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4등운이 3등운으로 병합되었고, 庚운 3등자와 淸운으로 합쳐졌다. 李新魁(1991: 120)는 『광운』의 206운으로부터 『오음집운』의 체계에서 병합된 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광운』의 2등 ‘중운(重韻)’이 합쳐진 경우, 둘째는 3등운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 셋째는 4등운과 3등운이 합쳐진 경우, 넷째는 『광운』의 거성이었던 卦, 夬운이 怪운으로 합쳐진 경우, 다섯째는 입성운이 26운부에서 8운부로 합쳐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오길용(1995: 53-54)은 『오음집운』에서 병합된 운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었다. 첫째는 2등운의 혼용(佳-夬-皆, 刪-山, 耕-庚, 銜-咸), 둘째는 4등운이 3등운으로 합쳐진 경우, 셋째는 3등운이지만 4등의 자리에 배치된 경우, 예를 들어 幽운이 3등운이지만 尤운이 3등에 배치되어 있어 4등에 배열한 경우로 나누었다. 정리하자면, 『광운』의 206운에서 『오음집운』으로 병합된 운을 忌浮(1987: 339)와 李新魁(1991: 120)는 다섯 가지로, 오길용(1995: 53-54)은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였다. 忌浮, 李新魁와 오길용의 분류는 대동소이한데, 다만 李新魁는 2등운 중운인 佳-皆운의 결합을 성조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합쳐진 운부의 입성운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음집운』에서 병합된 운을 2등운 중운의 병합, 3등운끼리의 병합, 3등운과 4등운의 병합된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경세도설』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27) 최석정, 『명곡집』, 「五音篇韻後序」, 韓國文集叢刊 154, 민족문화추진회, 1995, 『五音篇韻』은 韓孝彥과 韓道昭 부자가 자료를 모아 수정한 것이다. 王與祕이 처음 『玉篇』을 넓혀 『篇海』를 지었고, 荊璞이 五音을 분별하여 『集韻』을 수정하였다. 한 씨 가문의 자서는 실로 천부적인 식견을 가졌고, 가문에서 전해지는 뛰어난 것으로 성취를 이루어, 마침내 두 책을 취하여 그 요지를 연구하였다.……王與祕은 後陽人이고, 荊璞은 字가 彥寶이고 洩淺人이다. 이들은 모두 金代 사람이다. 韓孝彥은 字가 允中이고, 韓道昭은 字가 伯暉이며 昌黎人이다. 劉鑑은 關中人으로, 字가 士明이고 元代 사람이다. 이들 모두 字書의 學에 정통하였는데, 특히 小韓(韓道昭)가 더욱 그러하였다(五音篇韻者, 卽韓孝彥道昭父子所輯修也. 始王與祕廣玉篇而爲篇海. 荊璞辨五音而脩集韻. 韓氏專門字書. 實有天縱之識. 而濟以家傳之妙. 遂取二書. 究觀要指.……王與祕. 後陽人也. 荊璞. 字彥寶. 洩淺人也. 竝(원문 ‘並’)金時人. 韓孝彥. 字允中. 道昭. 字伯暉. 昌黎人也. 劉鑑. 關中人也. 字士明. 竝(원문 ‘並’)元時人. 皆精於字書之學. 而小韓尤邃云).

28) 『四庫全書提要』에서는 “『오음집운』이 대체로 『광운』을 기초로 하여 『집운』을 근간으로 삼아 글자를 추가하였다(大抵以『廣韻』爲藍本, 而增入之字卽以『集韻』爲藍本)”고 서술하였다.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46쪽 재인용.

1. 운부 체계 비교

『광운』(1008)은 206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예부운략』(1037)은 『광운』의 독용 및 동용예에 근거하여 206운을 106운(혹은 107운)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음집운』(1208)은 『예부운략』보다 171년이나 늦게 편찬되었지만, 그 편운 체계가 『예부운략』의 106운(107운)보다 더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 160운이 되었다. 『경세도설』의 「성음을려창화전수도(聲音律呂唱和全數圖)」²⁹⁾와 『오음집운』의 운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³⁰⁾

〈표 4〉 『경세훈민정음도설』과 『오음집운』의 운목 비교표

『經世圖說』	『五音集韻』	『經世圖說』	『五音集韻』
東董送屋	東董送屋	歌哿箇鐸/藥	歌哿箇
冬腫宋沃	冬腫宋沃	戈果過鐸/藥	戈果過
鍾腫用燭	鍾腫用燭	麻馬禡陌/昔	麻馬禡
江講絳覺	江講絳覺	陽養漾藥	陽養漾藥
支紙寘昔		唐蕩宕鐸	唐蕩宕鐸
脂旨至質	脂旨至	庚梗敬陌	庚梗映陌
之止志職		耕耿諍麥	
微尾未物	微尾未	清靜勁/敬昔	清靜勁昔
魚語御藥	魚語御	青迥徑錫	青迥徑錫
虞麌遇燭	虞麌遇	蒸拯證職	蒸拯證職
模姥暮鐸	模姥暮	登等磴德	登等磴德
齊齋霽屑	齊齋霽	尤有宥	尤有宥
祭薛	祭	侯厚候屋	侯厚候
泰曷	泰	侵寢沁緝	侵寢沁緝
廢月	廢	覃感歆合	覃感歆合
夫轄 ³¹⁾		談敢闕盍	
皆駭怪黠	皆駭怪	鹽琰豔葉	鹽琰豔葉
佳蟹卦陌		銜檻鑑狎	咸琰陷洽
灰賄隊德	灰賄隊	嚴儼釅業	凡范梵乏
哈海代沒	哈海代		
眞軫震質	眞軫震質		
文吻問物	諄準稕術		
元阮願月	文吻問物		
魂混懇沒	殷隱焮迄		
痕很恨沒	痕很恨沒		
寒旱翰曷	魂混懇沒		

29) 『경세도설』의 乾권에 실려 있고, 본 운도에 해당한다.

30) 「성음을려창화전수도」와 『오음집운』의 운목을 비교하기 쉽게 『광운』 운목의 순서대로 재조정하여 배치하였다.

『經世圖說』	『五音集韻』	『經世圖說』	『五音集韻』
桓緩換末	元阮願月		
刪潛諫轄	寒旱翰曷		
山產禡黠	桓緩換末		
先銑霰屑	山產諫轄		
仙彌線薛	仙彌線薛		
宵小笑藥	宵小笑		
肴巧效覺	肴巧效		
豪皓號沃	豪皓號		

위의 표에서 『오음집운』은 160운으로, 『경세도설』은 180운³²⁾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오음집운』이 『경세도설』보다 더 적은 운부(韻部)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경세도설』의 운부와 일치하는 곳에 『오음집운』의 운부를 간격을 조정하여 배열하였다. 이 두 문헌의 운부 배열을 보면, 『경세도설』에서 입성운(入聲韻)은 양성운(陽聲韻) 및 음성운(陰聲韻)과 합쳐져 운부를 구성한다. 『오음집운』은 전통 운서의 배열과 같이 양성운만이 입성운과 결합할 뿐, 음성운은 입성운과 함께 배열되지 않았다.³³⁾

『경세도설』은 운부의 분류에 있어서 『오음집운』보다 오히려 더 의고(擬古)적이며, 이는 『오음집운』보다 이전의 운부체계에 가깝다. 예를 들어, 『경세도설』에서 支, 脂, 之운은 분리하고 있으나, 『오음집운』에서는 세 운이 脂운으로 합류되었다. 『경세도설』은 皆, 佳운을 따로 배열하였으나, 『오음집운』의 경우 이 두 운은 皆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의 祭, 泰, 夬, 廢운은 독립하고 있으나, 『오음집운』에서 卦, 夬운은 怪운으로 합쳐졌고, 祭, 廢운만 배열하고 있다. 『경세도설』은 山, 刪운, 庚, 耕운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나, 『오음집운』에서 刪운은 山운으로, 耕운은 庚운으로, 銜운은 咸운으로 병합되었다. 또한, 咸운과 凡운의 경우, 『경세도설』에서는 독립적으로 배열하지 않았지만, 『오음집운』에서는 嚴운자를 凡운으로, 銜운을 咸운으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예들은 『경세도설』의 운부체계가 『오음집운』에서 나타나는 2등 중운, 3등운 및 3·4등운 간의 병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세도설』에 수록된 용자에서도 운목과 같이 위의 운들을 엄격히 분류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에서 『오음집운』 운모체계의 세 가지 특징에 따라 『경세도설』의 용자(用字)를 살펴 보고자 한다.

31) 『광운』, 『오음집운』에서는 ‘鑑’로 표기하고 있다. 同字.

32) 본고에서는 『경세도설』의 8궁도(八宮圖)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록된 5장의 운도 역시 『경세도설』의 운부 체계로 보았다.

33) 중국 운도인 『사성등자(四聲等子)』,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 및 『절운지남』에서도 음성운과 입성운의 배합이 이루어진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경세도설』 용자의 배열과 『오음집운』 운모체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경세도설』 입성운과 중국 운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운의 병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오음집운』 운모체계의 특징에 따른 용자 배열 비교

앞서 설명하였듯이, 『오음집운』에서 병합된 운은 2등운 중운의 병합, 3등운끼리의 병합, 3등운과 4등운의 병합된 경우 등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오음집운』의 소운자(小韻字)와 『경세도설』의 용자(用字) 배열을 대조 및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용자 배열을 비교함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광운』 및 『오음집운』의 재구음과 『경세도설』의 표기음을 통하여 초보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광운』은 李方桂의 재구음³⁴⁾을 참고하였다. 李新魁(1991)은 『오음집운』의 운모체계에 대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扈浮(1987: 340)의 운모 재구음에 근거하였다. 『경세도설』의 표기음은 훈민정음의 음가에 기반하여 추정하였다.³⁵⁾

(1) 2등 중운의 병합

『광운』의 2등운³⁶⁾으로는 江·佳·皆·夫·刪·山·肴·麻二·庚二·耕·咸·銜운이 있는데, 그 중 江, 肴, 麻운을 제외한 2등운은 서로 짝을 이룬다. 예를 들어, ‘佳-皆-夫’ 세 운이 함께 짝이 될 수 있고, ‘刪-山’ 운, ‘庚-耕’ 운, ‘咸-銜’ 운이 한 쌍을 이루는데 이를 중운(重韻)이라 한다. 이 중 『오음집운』에서 刪운과 山운, 佳운과 皆운, 庚운과 耕운, 咸운과 銜운 등이 합쳐졌다.

먼저 山韻에 대해 살펴 보자면, 山韻은 『광운』에서 刪, 山운은 동용(同用)이고, 『오음집운』에서 刪운은 山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에서 刪운은 본 운도에 배치되어 있다. 刪운에서 『광운』의 刪운 2등자(姦, 刪, 顏, 班, 攀, 蠻)와 山운 2등자(堅, 黥, 爛)를 혼용하고 있다. 轄운에서는 黠운자(疢, 殺)와 轄운자(袞, 轄)를 혼용하고 있다. 『경세도설』의 震宮圖에서 첫 행에는 山운, 두 번째 행에서 山, 刪운자를 같이 배열

34)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134~142쪽 재인용.

35) 최석정의 초성(初聲) 체계뿐만 아니라, 중성체계는 다분히 인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체계는 벽훈(鬮翁), 즉 개합(開合)에 의하여 나뉘고, 일벽(一鬮), 이훈(二翁), 삼벽(三鬮), 사훈(四翁)에 해당하는 중성 16개에 ‘|·|·|’를 더하여 나머지 중성 16개를 연역해낸 것이다. 『사성통해(四聲通解)』(1517)와 『동국정운(東國正韻)』(1448)의 한자음 표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세도설(經世圖說)』의 중성 표기는 『사성통해(四聲通解)』보다는 『동국정운(東國正韻)』과 일치하는 표기가 더 많지만, 자모와 대응하는 운을 함께 논한다면 어느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가 아니다. 또한, 중세 국어의 중성 표기에 쓰이지 않았던 표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중세 국어의 실제 음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석정이 역리적 구조와 수학적 연산을 더하여 중성체계를 도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성 32음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一鬮	二翁	三鬮	四翁	-	-	-	-
표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기음	a	oa	ʌ	o	ai	oai	ʌi	oi
표기	ㅓ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기음	ia	ioia	iʌ	io	iai	ioiai	ʌii	ioi
표기	ㅓ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기음	ə	uə	i	u	əi	uəi	ii	ui
표기	ㅓ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기음	i	iui	ii	iu	iəi	iuiəi	iii	iui

36) 원본 『광운』은 본래 등운(等韻)으로 구분한 운서가 아니다. 후대 학자들이 등운도 문헌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광운』의 운을 1, 2, 3, 4등운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麥耘의 『音韻學概論』(2009: 67)에 나오는 분류를 따랐다.

하였는데, 그 예로 평성과 상성에서 『광운』의 山운부 2등자(鰥, 慳)와 刪운부 2등자(頽, 撰)를 한 행에 배치하여, 『광운』의 山운부 2등과 刪운부 2등을 혼용하고 있다. 이는 『경세도설』에서 이미 山운과 刪운이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刪운 개구 2등	[-an]	姦, 刪, 顏, 班, 攀, 蠻	山운 개구 2등	[-an]	刪	[-ian]
山운 개구 2등	[-ān]	慳, 鰥, 爛				
刪운 합구 2등	[-uan]	頽, 撰	山운 합구 2등	[-uan]	無	[-ion]
山운 합구 2등	[-uān]	鰥, 慳				
轄운 개구 2등	[-ät]	帙, 瞎, 轄	轄운 개구 2등	[-at]	轄운 개구	[-iat]
黠운 개구 2등	[-at]	疤, 殺				
轄운 합구 2등	[-uät]	刮, 別, 納, 刷	轄운 합구 2등	[-uat]	轄운 합구	[-ioiat]

다음으로, 皆운은 『광운』에서 佳, 皆운이 동용(同用)이고, 거성 卦, 怪, 夬운이 동용이다. 『오음집운』에서 佳, 皆운이 皆駭怪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의 皆운자는 대체로 『광운』의 皆운 2등 합구자이고, 소수 皆운자는 佳(瘥), 支(提), 脂(頽), 隊(麗), 齊(媿)운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皆운에 속한다. 『경세도설』의 佳운자를 살펴보면 『광운』에서 대부분 佳운에 속하는 글자들이지만, 소수 支(筴, 鞞), 脂(帟, 篋), 齊(批), 皆(媿)운부자도 혼용되고 있고, 『오음집운』에서는 이 글자들이 모두 皆운에 속한다. 이는 『경세도설』의 佳운과 皆운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佳운이 皆운과 혼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수 佳, 皆, 支, 脂, 齊운자 간 혼용은 止섭과 蟹섭의 합류 현상을 나타낸다.³⁷⁾ 『경세도설』의 夬운 11자 중 8자가 『광운』 夬운에 속하고, 卦(謏), 怪(禱)운자도 나타났다. 이 글자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怪운에 속한다. 거성 夬운에서 표면적으로 표기한 운목과 다르게 卦, 怪, 夬운자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세도설』에서는 佳, 皆운 및 거성 卦, 怪, 夬운은 이미 합쳐졌다고 보아야 한다.

37) 麥耘(2009: 80)은 중고음 전기와 중고음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 운모 계통의 변화를 蟹攝자들이 止攝에 합류되는 현상을 꼽았다. 『사성등자』에서는 止섭과 蟹섭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질운지장도』에서는 灰운자와 泰운의 合口字가 止攝 合口 운도의 1등에 위치한 것은 당시 실제 어음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皆운	[-äi]	皆, 排 등	皆운	[-ai]	皆운	[-ɬii]
佳운	[-ai]	瘥				
支운	[-jɛ]	徃				
脂운	[-ji]	頰				
隊운	[-uɔi]	巖				
齊운	[-iei]	媿				
夫운	[-ai]	拑, 隸 등	怪운	[-ai]	夫운	[-iai]
卦운	[-ai]	謔				
怪운	[-äi]	楸				

셋째로, 耕운은 『광운』에서 庚, 淸운과 함께 동용(同用)이고, 『오음집운』에서 庚운으로 병합되었다. 耕운과 庚운은 2등운이다. 『경세도설』의 庚운자 중에는 『광운』의 庚운 2등자들을 배열하고 있으나, 耕운 2등자(鬻, 淨)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庚운 개구 2등	[-ɛŋ]	庚, 阨, 趟, 根, 瞠, 彭, 烹 등	庚운	[-ɛŋ]	庚운	[-iaɪŋ]
耕운 2등	[-æŋ]	鬻, 淨				

咸운과 銜운은 『광운』에서 동용이고, 『오음집운』에서 이 두 운은 咸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은 咸운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銜운을 수록하고 있다. 『경세도설』의 銜운자는 대부분 『광운』 銜운 2등자이며, 『오음집운』에서 咸운 2등에 속한다. 銜운자 중 咸운(杉, 斬, 瀆, 陷)자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 두 운은 혼용되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銜운	[-am]	監, 巖, 銜	咸운	[-am]	銜운	[-iam]
咸운	[-äm]	杉, 斬, 瀆, 陷				

(2) 3등운의 병합

『광운』에서 東·鍾三·支·脂·之·微·魚·虞·祭·廢·眞·諄·臻·文·欣·元·仙·宵·戈三·麻三·陽·庚三·淸·蒸·尤·幽·侵·鹽·嚴·凡운은 3등운으로 분류된다. 위의 3등운 중, 『오음집운』에서

脂·支·之운은 支운으로, 眞·臻운은 眞운으로, 嚴·凡운은 凡운으로 각각 병합되었다. 支·脂·之운은 이미 『예부운략』에서도 支운으로 합쳐졌으며, 이 세 운은 『오음집운』에서도 합류되었다.

『경세도설』의 경우, 支·脂·之운은 여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脂·支·之운이 『경세도설』에서 각각 다른 세 개의 섭에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脂운은 『경세도설』에서 咍운과 함께 履攝內三 離之三關의 開口圖에 배열되었고, 合口圖에는 灰, 微운을 배치하였다. 支운은 3, 4등에 배열하고 있으며, 2등에 佳운자를 배치하였다. 咍, 之운은 頤攝內五 巽之三關에 수록하였고, 合口圖에는 灰, 之운을 배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王松木(2016)은 支·脂·之운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청대 음운학자 단옥재(段玉裁)보다도 먼저 脂·支·之운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표면으로 드러난 분운 체계와는 달리, 일부 支·之운은 혼용되고 있음을 대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履攝內三 離之三關도의 脂운은 『광운』의 之운자(歎)를 脂운자와 함께 배열하였다. 또한, 履攝內三 離之三關도에서 脂운부와 支운부(庫)를 함께 열거하기도 하였다. 解攝外五, 巽之一關도에서 眞운자에는 『광운』의 脂운자(地)가 섞여 있고, 頤攝內五 巽之三關과 巽之四翕의 之운자에는 『광운』의 脂운자(踈, 軌, 洧)가 섞여 있다. 이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支운에 속한다. 따라서 『경세도설』에서 표면적으로 支, 脂, 之운을 구분하였으나, 일부 글자에서 支·脂·之운자를 같은 행에 배열하고 있어 혼용되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脂운	[ʝil]	狻, 貶, 墀 등	支운 개구	[-i]	脂운 개구	[-i(i) ³⁸⁾
之운	[-i]	歎				
之운	[-i]	紀, 起, 擬 등	支운 개구	[-i]	之운 개구	[-i]
脂운	[-ʝil]	踈				
脂운	[-ʝwi/-wi]	軌, 洧	支운 합구	[-ui]	之운 합구	[-ui]

『경세도설』의 淸운 3등의 자리에 『광운』의 淸운 3등자와 『광운』의 庚운 3등자 후음, 순음, 아음자(驚, 榮, 卿, 迎, 平, 明, 警, 丙, 皿, 敬, 競, 慶, 柄, 病, 病, 命, 映)를 혼용하고 있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庚운 3등	[-jɛŋ]	驚, 榮, 卿, 迎, 平, 明, 警, 丙, 皿 등	淸운 3등	[-iɛŋ]	淸운 3등	[-ɛiŋ]
淸운 3등	[-jɛŋ]	貞, 呈, 櫻, 征, 聲, 成				

한편, 『경세도설』에서 眞·臻운은 晉攝內四 震之三關 운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2등에는 臻운자(臻, 稔, 莘, 醞, 櫛, 阨)를 배치하고, 3등에는 眞운자와 殷운자(欣, 蟻, 近, 竈, 抑, 隱), 4등에는 眞운자를 배열하였

38) 본고에서는 중성 ‘ɿ’의 음가를 [-i]로 보았다.

다. 『광운』에서 眞, 臻, 諄운이 동용이고, 『오음집운』에서는 眞, 臻운이 합쳐지고, 諄운은 분립하였다. 諄운은 『경세도설』에서 眞攝內四 震之四翁에 배치되어 文운자와 함께 3등에 배열되었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운도를 살펴 보면, 『사성등자』의 眞攝外三 開口呼 운도에서는 眞운의 2등 자리에 臻운자를 배열하고, 3등의 위치에 眞운과 殷운을 배열하였다. 眞攝外三 合口圖에서는 “文諄相助”라고 주해하였으며, 운도 내에서 文운자와 諄운자를 같이 배열하였다. 『절운지장도』에서도 마찬가지로 眞, 眞, 殷운을 한 운도에 배열하였는데, 제9도에서 眞운을 眞운의 2등에, 그리고 殷운자와 眞운자를 3등에, 諄운자와 眞운자를 4등에 배치하였다. 제10도에는 諄운자와 文운자를 한 행에 배열하고, 4등에는 諄운자와 文운 및 眞운의 脣音자가 혼재하였다. 이는 『경세도설』과 같이 開口인 眞운과 眞운이 합쳐지고, 合口인 文운과 諄운이 같이 배열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오음집운』에서는 文운과 諄운이 분립하고, 『경세도설』에서는 文운과 諄운을 상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은 차이를 보인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臻운	[jæŋ]	臻, 臻, 莘, 醕, 櫛, 阡	眞운 2등	[-iæŋ]	眞운 2등	[-iæŋ]
眞운	[jĕŋ]	巾, 瑾, 銀, 陳, 紉, 彬 등	眞운 3등	[-iĕŋ]	眞운 3등	[-in]
殷운	[jəŋ]	欣, 鱻, 近, 聃, 抑, 隱	殷운 3등	[-ien]		
眞운	[-jwĕŋ]	麿, 筠, 困	諄운	[-iuæŋ]	文운 3등	[-un]
諄운	[-juĕŋ]	屯, 椿, 脣, 春, 純, 淪, 棼		[-uen]		
文운	[-juæn]	羣, 汾, 芬, 文, 煨	文운	[-uen]	文운 4등	[-iun]
諄운	[-juĕŋ]	均, 遵, 鷓, 逡 등	諄운	[-iuæŋ]		

『광운』에서 嚴운과 凡운은 同用이고, 『오음집운』에서는 嚴운이 凡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의 眞攝外八 坤之二翁도는 嚴운만을 배열하고 있다. 『경세도설』은 嚴운에 嚴韻 開口 3등자(嚴, 醃, 掩, 醜, 脅)와 凡운 合口 3등자(凡, 芝, 胥, 范, 汎, 鉞, 劒, 欠, 梵, 汎, 俺)를 혼용하고, 입성 業운(劫, 跲, 怯, 業, 脅, 掩)과 乏운(貓, 狶, 法, 乏, 狹)이 혼재하고 있다. 『경세도설』의 嚴운자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凡운에 속한다. 또한, 『절운지장도』의 제5도에서 3등에 嚴, 凡운을 같이 배열했고, 『사성등자』에서는 眞攝外八도의 3등에서 嚴, 凡韻자를 배열하고 있다. 이를 보면 嚴, 凡운은 분명 합류되었음이 틀림없다. 단지 최석정이 합구호의 위치에 있어야 할 凡韻을 ‘嚴’운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어의 변화 과정과 맞지 않다. 최석정이 왜 ‘嚴’운으로 표기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언어관과 함께 더욱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嚴韻 開口 3등	[-jɛm]	嚴, 醜, 埤, 醜, 脅	凡운	[-iɛm]	嚴운	[-uəɪm]
凡운 合口 3등	[-jwɛm]	凡, 芝, 腰, 范, 汎, 錢, 劍, 欠, 梵, 汎, 俺				
業운	[-jɛp]	劫, 跽, 怯, 業, 脅, 腌	乏운	[-iɛp]	業운	[-uəɪp]
乏운	[-jwɛp]	獮, 獮, 法, 乏, 乏				

(3) 3등운과 4등운의 병합

『광운』의 4등운에는 齊·先·蕭·青·添운 등이 있는데, 『오음집운』에서는 宵운과 蕭운, 仙운과 先운, 그리고 鹽운과 添운이 각각 병합하였다.

淸운과 靑운은 각각 『광운』의 3등운과 4등운에 속한다. 『경세도설』에서는 靑운에 淸운 3등자(菁, 嫫)와 靑운 4등자(冥, 星, 刑, 馨)를 함께 배열하고 있다. 이 두 운은 『광운』에서 淸운은 耕, 庚운과 동용이고, 靑운은 獨用(獨用)이다. 『오음집운』에서 淸운과 靑운을 분리시키고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淸운 3등	[-jɛŋ]	菁, 嫫	靑운	[-iɛŋ]	靑운	[-iɪŋ]
靑운 4등	[-iɛŋ]	冥, 星, 刑, 馨				

『광운』에서 宵·蕭운은 동용이고, 『오음집운』에서는 蕭운이 宵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에서 宵운은 劓攝外七 良之一 關圖의 3, 4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3등에는 宵운 B류(驕, 喬, 趨, 苗, 驕, 蕭, 蕭, 夭, 趨, 裊)를 배열하고, 4등에는 宵운 A류(褫, 標, 眇, 闕, 驪, 妙, 要)와 蕭운(迢, 剝) 글자가 같이 배열되었다. 따라서 『경세도설』에서 宵운과 蕭운은 혼용되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宵운 B류 ³⁹⁾	[-jɛu]	驕, 喬, 趨, 苗, 驕, 蕭, 蕭, 夭, 趨, 裊	宵운	[-iɛu]	宵운 3등	[-əu]
宵운	[-jɛu]	朝, 昭, 招, 鴟 등				
宵운 A류	[-jɛu]	褫, 標, 眇, 闕, 驪, 妙, 要				
蕭운	[-iɛu]	迢, 剝				

『광운』과 『오음집운』에서 先운은 仙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에서 仙운은 觀攝外四 震之一關에 위치하고, 先운부의 글자와 혼용되었다. 『경세도설』에 수록된 仙운자에는 『광운』의 先운자(繭, 撚, 篇, 遍, 瑱, 禱) 및 薛운자(蠶, 瞥, 蠶, 拙, 薛)와 仙운자(遣, 褊, 梗, 謹, 便, 驪) 및 입성 屑운자(蹙, 蔑, 截, 切)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先운과 仙운이 합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仙운	[-jɛn]	繭, 撚, 篇, 遍, 瑱, 禱	仙운	[-ien]	仙운	[-iɛn]
先운	[-ien]	遣, 褊, 梗, 謹, 便, 驪				
薛운	[-jɛt]	蠶, 瞥, 蠶, 拙, 薛	薛운	[-iet]	薛운	[-iɛt]
屑운	[-iet]	蹙, 蔑, 截, 切				

『경세도설』에서 鹽운은 謙攝外八 坤之一關도에서 3, 4등에 배열되어 있는데, 3등에는 鹽운 개구 3등자(鍼, 憾, 讎, 淹, 苫, 樑, 廉, 祓, 痃), 4등에는 鹽운 개구 3등(尖, 潜, 籤, 厭, 鹽, 鈇, 腴, 嘖 등) 및 添운 개구 4등자(謙, 鮎, 偕, 櫛, 儉)를 함께 배열하였다. 鹽운은 본래 『광운』에서 重紐를 가진 운으로, 鹽韻 A류와 鹽韻 B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경세도설』의 3등에서 重紐 A류(苫, 樑, 廉, 痃)와 B류(鍼, 憾, 讎, 淹, 祓)가 같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미 A류와 B류 간의 대립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등에 鹽韻字와 添韻字를 함께 배열한 것 역시 鹽, 添韻이 합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鹽운 A류	[-jɛm]	苫, 樑, 廉	鹽운	[-iɛm]	鹽운 개구 3등	[-ɛm]
鹽운 B류	[-jɛm]	鍼, 憾, 讎, 淹				
鹽운 개구 3등	[-jɛm]	尖, 潜, 籤, 厭, 鹽, 鈇, 腴, 嘖 등	鹽운	[-iɛm]	鹽운 개구 4등	[-iɛm]
添운 개구 4등	[-iem]	謙, 鮎, 偕, 櫛, 儉				

(4) 그 외의 특징

『경세도설』 표기음과 『오음집운』 재구음의 비교를 통하여 이 두 음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두 문헌은 개합(開合)의 차이(嚴韻, 『경세도설』 : [-uɛm], 『오음집운』 : 凡운에 병합된 뒤 [-iɛm]으로 표

39) 李新魁(1986)가 수록한 李方桂의 재구음에서 중뉴 A류와 B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의 중뉴 재구음도 이와 같다.

기), 개음(介音)의 유무에 따른 차이(刪韻, 『경세도설』 : [-ian], 『오음집운』 : [-an]), 주요 모음의 차이(淸韻, 『경세도설』 : [-ieŋ], 『오음집운』 : [-eŋ]) 등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음가의 차이는 한어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보다, 최석정의 언어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세도설』의 중성 체계는 역리적인 틀에서 비롯되어 기계적인 공식에 맞추어 도출한 것이다. 「음분벽흡도」 중 일벽, 이흡, 삼벽, 사흡의 16개 자모가 합쳐져 나머지 16개의 중성 자모가 생성되었고, 이때 주요 원리는 중성 ‘[-i-]’를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표음 방식은 한어 현실음뿐만 아니라, 문언음과도 괴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운도에서 중성 자모를 표기할 때 「음분벽흡도」의 순서를 주로 따랐으므로, 『경세도설』 표기음과 『오음집운』 재구음 간 주요 모음의 차이도 역시 이러한 배열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結 論

이 연구는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음운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운부 체계 및 용자 배열에 대한 논의를 그 첫걸음으로 삼았다. 『경세도설』이 『오음집운』에 근거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구체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최석정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여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분운 체계를 비교한 결과, 支, 脂, 之, 皆, 佳, 山, 刪, 銜, 咸, 嚴, 凡운 등의 분립과 관련해 『경세도설』은 의고적인 체계를 띄고 있으며, 『오음집운』은 이미 이러한 운들을 병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당히 복고적인 최석정의 언어관과 연관이 있다. 『오음집운』의 운모체계는 등운도의 성질을 가미하고 있어, 그 운모체계의 특징을 4등과 함께 연결지어 2등운의 병합, 3등운 간의 합류, 3·4등운 간의 병합으로 나눌 수 있다. 『오음집운』의 소운자(小韻字)와 『경세도설』 중 용자(用字)를 비교한 결과, 『경세도설』의 운목과 실제 용자의 배열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등운 중운의 경우, 『오음집운』에서 刪운과 山운, 佳운과 皆운, 庚운과 耕운, 咸운과 銜운 등이 합쳐졌고, 『경세도설』에서 山·刪운, 佳·皆운 및 거성 卦·怪·夬운, 耕·庚운, 咸·銜운이 실제 용자에서는 병합되었다. 『오음집운』에서 3등운 간 병합한 것으로는 支·脂·之운이 支운으로 귀속된 경우, 眞·臻운이 眞운으로 합쳐진 경우, 嚴·凡운이 凡운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다. 『경세도설』에서는 支·脂·之운을 분립하고 있으나, 실제 용자에서는 支·脂·之운이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운목과 실제 용자 간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다. 그리고 眞·臻운은 眞운으로, 嚴·凡운은 嚴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에서 凡韻은 嚴운에 귀속시켰으나, 『오음집운』은 嚴운을 凡운에 배열하고 있으므로 嚴·凡운의 배치에 대해서는 이 두 문헌은 차이를 보인다. 『오음집운』에서 3등운과 4등운이 합쳐진 예로는 宵·蕭, 仙·先, 鹽·添운이 있다. 『경세도설』에서 先운과 仙운, 鹽운과 添韻이 합류되었고, 宵·蕭운, 靑·淸운이 각각 함께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세도설』의 용자 배열은 대체로 분운 체계와 달리 2등운의 병합, 3등운 간의 합류, 3·4등운 간의 병합의 양상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세도설』의 편찬에 『오음집운』을 참고하였다는 「興寧齊斗書又」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경세도설』의 중성 표기음이 『오음집운』의 재구음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석정이 자신의 언어관념과 역리적 틀에 따라 설계한 중성 자모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는 『오음집운』에서 서로 동용 관계에 있지 않은 元·仙운이 『경세도설』에서는 같이 元운에 병열되고 있으며, 脂·微운이 같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음창화도」와 『절운지남』의 배열과 일치한다. 『경세도설』과 「성음창화도」, 『절운지남』의 실제 용자 비교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 차후 『경세도설』 음계의 특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신향, 『國語學散稿』, 도서출판 월인, 2007.
-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2012.
- 배운덕,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韻攝圖와 관련하여」, 『국어국문학』 104, 1990.
- 배운덕,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동방학지』 71-72, 1991.
- 배운덕,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外内四攝부터 外内八攝까지」, 『국어국문학』 114, 1995.
- 배운덕, 『우리말 운서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심소희, 「최석정의 《經世訓民正音圖說》 연구: 〈聲音律呂唱和全數圖〉과 《經史正音切韻指南》의 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73, 2012a.
- 심소희, 「《經書正韻圖說》 譯註」, 『中國語文論譯叢刊』, 30, 2012b.
- 심소희, 「최석정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 대한 인식」, 『한중언어문화연구』 28, 2012c.
- 심소희, 「『經世訓民正音圖說』 坤冊 「群書折衷」 연구」, 『民族文化』 43, 2014.
- 오길용, 「〈오음집운〉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윤명선, 「崔錫鼎의 生涯와 學問」,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정제두, 『하국집』, 『韓國文集叢刊 160』, 민족문화추진회, 1995.
- 최석정, 『명국집』, 『韓國文集叢刊 154』, 민족문화추진회, 1995.
- 최석정(저), 김지용(해제), 『경세훈민정음도설』, 명문당, 2011.
- 홍현지, 「近古時期 중국어 북방음 韻母體系」,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未詳, 『四聲等子』, 北京: 中華書局, 1985.
- (宋)司馬光, 『切韻指掌圖』, 『影印文淵閣四庫全書 237』, 臺灣: 商務印書館, 1986.
- (金)韓道昭著, 寧忌浮校訂, 『校訂五音集韻』, 北京: 中華書局, 1992.
- (元)劉鑑, 『經史正音切韻指南』, 『影印文淵閣四庫全書 238』, 臺灣: 商務印書館, 1986.
- 胡廣等纂修, 『性理大全』, 『影印文淵閣四庫全書 711』, 臺灣: 商務印書館, 1986.
- 忌浮, 「金代漢語語言述評」, 『社會科學戰線』 1, 1987.
- 忌浮, 「《五音集韻》與等韻學」, 『音韻學研究』 3, 1994.
- 忌浮, 「《切韻指南》的唇音開合與入配陰陽: 《切韻指南》研究之二」, 『社會科學戰線』 6, 1993.
- 李昌禹, 「《五音集韻》異讀字研究」, 北京大學 碩士論文, 2013.
-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 李新魁, 『中古音』, 北京: 商務印書館, 1991.
- 麥耘, 『音韻學概論』,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9.
- 王力, 『王力文集』,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1988.
- 王松木, 「《正音》素臣-崔錫鼎《經世訓民正音圖說》的設計理念與音韻系統」, 『文與哲』 29, 2016.
- 周祖謨, 『問學集』, 北京: 中華書局, 1966.

* 이 논문은 2021년 2월 16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Comparison Study of Rhyme Categorization of Ch'oesŏkchŏng's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and Wŭyĭnjŭyùn

Bae, Gyuree*

Ch'oesŏkchŏng(최석정, 崔錫鼎)'s *Kyŏngsehunminjŏngŭmdosŏl*(경세훈민정음도설, 經世訓民正音圖說) is a rhyme table in which the Korean alphabet was added, and it is of great value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Chinese phonology.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vowels and finals system of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with that of *Wŭyĭnjŭyùn*(오음집운, 五音集韻) to clarify the traits of the phonological system i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The study constructed a philological relation betwee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and *Wŭyĭnjŭyùn* based on a record in the collection of Ch'oe's work and analyzed the rhyme system of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with regard to the traits of the vowels and finals system in *Wŭyĭnjŭyùn*, such as the second grade rhymes(2등운, 二等韻) integration, the merger of the third grade rhymes(3등운, 三等韻), the third and fourth grades(4등운, 四等韻) integration and so on.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rhymes which are integrated in *Wŭyĭnjŭyùn*, such as Jiē(皆) and Jiā(佳) rhymes, Guà(卦), Guài(怪) and Guài(夬) rhymes, Gēng(耕) and Gēng(庚) rhymes, Shān(山) and Shān(刪) rhymes, Zhī(支), Zhī(脂) and Zhī(之) rhymes, Zhēn(眞) and Zhēn(臻) rhymes, Xiāo(宵) and Xiāo(蕭) rhymes, Xiān(仙) and Xiān(先), Yán(鹽) and Tiān(添) rhymes, are divided individually in the rhyme system of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Unlike the rhyme list, the actual order of Chinese characters showed the mix of the second grade rhymes(2등운, 二等韻), the merger of the third grade rhymes(3등운, 三等韻), and the mix of third and fourth grades(4등운, 四等韻),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its rhyme system. Also, Yuán(元) and Xiān(仙) rhymes and Zhī(支), Zhī(脂), Zhī(之) and Wēi(微) rhymes i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are arranged in the same category,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Wŭyĭnjŭyùn*. This study also found the usage of Yuán(元) and Xiān(仙) rhymes and Zhī(支), Zhī(脂), Zhī(之) and Wēi(微) rhymes i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is instead equivalent to *Shēngyīnchàng hètú*(聲音唱和圖) and *Qièyùnzhǐnán*(切韻指南). This study recognized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used artificial

* Ph.D Candidate, Xiamen University, Chinese Philology

letters for the transcription of medial Korean syllables, which does not reflect *Wŭyīnjŭyŭn*. This was due to the way Ch'oe deduced the medial letters, which was based on his imaginative view of the Korean language, as opposed to the actual sounds.

[Keywords] Rhyme tables in Korea, Ch'oesŏkchŏng, *Wŭyīnjŭyŭ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the medial letters, Ch'oe's view of Korean language